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 전생애적 접근*

Mother-Child Attachment and its Effect on Social Competence ; A Life-Span View

한국교원대 부교수 : 趙 炳 恩	이화여대 교 수 : 朴 性 妍
한국가족상담 연구소	전국대 강 사 : 李 貞 順
책임 연구원 : 俞 恩 姬	이화여대 강 사 : 劉 明 姬
전남대 부교수 : 李 淑	공주대 부교수 : 金 相 熙
이화여대 조교수 : 崔 惠 卿	전남대 강 사 : 朴 應 任

본 연구는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모-자녀간 상호작용의 특성 및 외조모, 모, 손녀 3세대간의 애착관계의 轉移와 그것의 반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전생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14~20개월의 영아와 그 어머니 45쌍, 국민학교 1, 2, 3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226쌍,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과 어머니, 외할머니로 구성된 모녀간 3세대 140쌍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애착관계는 전생애에 걸쳐 비교적 높았고 상호작용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의 특징은 발달단계별로 달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관계는 어머니의 적절한 양육행동이, 아동기는 신뢰감을 주는 양육행동이, 청년기에는 애착감정이, 그리고 중년기 이후에는 자율성만이 애착관계와 관련이 있었다. 3세대간의 애착관계의 전이는 중년기 이후에만 나타났고,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사회적 능력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애착이론을 지지하였다.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자녀수의 감소 및 개인수명 연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 자녀 관계의 기간이 길어짐에

*이 논문은 199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따라 부모 자녀 관계에 새로운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고 있다. 가족의 핵가족화 현상은 부모 자녀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는 반면에 지나친 밀착으로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노인들의 소외현상과 성인 자녀와 노인 부모의 기능적인 관계 정립에 혼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하는 가족에 있어서 부모 자녀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요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부모 자녀 관계는 애정적 유대감과 의무감이 중요시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서,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면서 동시에 개인, 가족의 발달단계에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부모 자녀 관계의 호혜적 상호작용을 전생애적으로 나타내는 관계 개념으로 '애착'이 중요시되고 있다. 애착이란 부모에 대한 근접성향(近接性向)을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 그 기능은 전생애적으로 지속되지만 애착의 행동양상은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가 새로운 인생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Cicirelli, 1983; Pillemer & McCartney, 1991). 즉, 영·유아기에는 자녀가 부모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며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특성을 나타내지만, 아동기와 청년기로 성장하면서 신체적인 접촉보다는 정서적 유대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율성으로 변화되어지는 특성을 갖게 된다.

애착과 자율성 발달은 청년기 이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중요 요소로서 작용하여 성인기 이후의 직장생활, 남년간의 애정관계, 노부모 부양 등 노부모와의 관계 또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특성으로서 표출된다고 한다(유은희, 1993; Cicirelli, 1983).

부모 자녀 관계는 상호작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자녀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이나 반응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와 같은 어머니의 행동은 자신의 어릴 적 애착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Bretherton et al., 1991). 따라서 애착연구에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우리의 핵가족은 서구의 핵가족과는 달리 구조적으로는 핵가족화 되어 있으면서도 성인자녀와 노인부모의 상호의존도가 긴밀한 수정확대 가족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가족의 부모 자녀 관계 연구에서는 단순히 부모-자녀의 2세대 뿐만 아니라 3세대도 함께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보이는 애착은 연구되었으나, 부모쪽에서 자녀에게 보이는 애착관계는 거의 연구의 쟁점이 되지 못했으며, 더욱이 3세대간의 부모-자녀간 역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부모 자녀간의 애착·자율성 발달은 개인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icirelli, 1983; Sroufe, 1985; Bretherton et al., 1991; 유은희, 1991a). 즉,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유아는 또래와 보다 적극적·호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친구수가 더 많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성취지향적이고 문제해결에 열성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Ainsworth et al., 1978; Sroufe, 1979; Main et al., 1985; Cassidy, 1986; Denham et al., 1991; 고경애, 1983).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은 아동기에도 사회적 능력과 긍정적인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6세아를 대상으로한 연구들에서 안정된 애착유형을 형성한 아동들은 또래간의 선호도와 대인 적응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arks & Waters, 1989; Cohn, 1990; 노명희, 1995). 청년기 이후에서는 애착과 자율성이 발달할수록 청년기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고(유은희, 1993; Cicirelli, 1983),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유은희, 1993). 그리고 현대 노인들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자녀와 분가하여 살기를 원하나 자녀와는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노인 부모들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애착과 자율성의 두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탐색하고,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자율성 발달이 자녀와 부모의 사회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전생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모-자녀 2세대간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발달단계별로 살펴보고 둘째,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조모-모-자녀 3세대간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발달단계별로 밝혀보며 셋째, 모-자녀의 애착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각 발달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

다.

II.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조모-모의 애착은 자녀(영아기, 아동기, 청년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연구문제 1〉본 연구는 부모 자녀간의 애착 특성, 자녀관계의 세대간 전이현상, 부모 자녀간의 애착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발달단계별로 살펴보고자 연구대상과 측정도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연구대상

영아기는 만 14~20개월의 영아와 그 어머니 45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기는 국민학교 1, 2, 3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226쌍으로 하였다. 청년기 이후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과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 구성된 모녀간 3세대 140쌍 420명이다.

2. 측정도구 및 방법

1) 애착관계

애착관계를 각 발달단계의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1)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관계

애착관계의 표현양상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영아기는 애착행동, 아동기는 애착행동과 애착감정으로, 청년기 이후는 애착감정과 자율성으로 측정하였다. 영아기에는 영아의 애착행동속에 감정이 포함되어 나타나므로 애착행동만을 보았고, 아동기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나타내는 애착관계에서 애착행동과 애착감정이 분화되어 나타나므로 두가지 다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청년기 이후의 애착관계에서는 애착감

정과 자율성이 뚜렷이 분화되므로 애착감정과 자율성에 의해서 애착관계를 측정하였다.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관계는 Ainsworth등(1978)이 개발한 '낯선상황' 척도를 수정하여 실험실에서 실험법으로 측정하였다. 아동기는 Klagsbrun-Bowlby(1976)의 격리불안검사(Seperation Anxiety Test)를 참고로 하여 격리시 감정과 행동으로 구성된 「아동용 애착 검사」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¹⁾. 청년기 이후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관계는 애착척도(유은희, 1991a)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²⁾.

(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관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관계는 영아기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민감성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민감성은 Smith와 Pederson(1988)의 민감성 측정방법을 수정하여 실험실에서 측정하였고,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박용임(199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³⁾. 아동기는 선행연구들(Epstein, 1983; 이 숙, 1988)을 토대로 '애정'과 '신뢰'로 구성된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⁴⁾. 어머니와 조모와의 애착관계는, 영아기와 아동기에서는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므로,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아동기 양육행동 경험을 측정하였다. 척도는 Epstein(1983)의 부모-포대-척도(MFPS)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⁵⁾. 청년기 이후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므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녀관계와 조모-모관계에서의 애착관계를 측정하였다. 애착관계 측정도구는 유은희(1991a)의 도구를 사용하였다⁶⁾.

2)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며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박

1) 격리시 감정- $\alpha=.70$, 격리시 행동- $\alpha=.72$

2) 청년기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관계- $\alpha=.91$,
중년기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관계- $\alpha=.89$

3) $\alpha=.81$

4) 애정- $\alpha=.77$, 신뢰- $\alpha=.60$

5) 영아기: 독립성 조장- $\alpha=.73$, 수용- $\alpha=.87$
아동기: 독립성 조장- $\alpha=.67$, 수용- $\alpha=.75$

6) 중년기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관계- $\alpha=.78$
노년기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관계- $\alpha=.88$

응임, 1988). 영아기의 사회적 능력은 낮은 사람이 낮은 상황에 대한 적응성과 사교성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련 연구들(Lewis, 1987; 박응임, 1988)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⁷⁾. 아동기는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인기도/지도력, 사교성 등을 나타내는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⁸⁾. 청년기 이후는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의 적응성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하였는데, Rosenberg(1979)의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⁹⁾.

IV.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영아기의 경우 영아의 평균 월령은 16.5개월이었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29.3세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0.0%와 대졸이 45.4%로 대부분 고졸 이상이었다. 아동기는 어머니의 연령이 평균 36.2세였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전체의 58.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졸이 23.5%를 차지하였다. 청년기 이후는 청년기 딸의 연령범위는 12~18세로 평균 연령은 14.7세였고, 중학생이 61.3%, 고등학생이 38.7%를 차지하였다.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58.6%, 확대가족이 20.7%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범위는 35~52세로 평균 41.8세였고, 교육 수준은 고졸이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30.7%를 차지하였다.

1. 연구문제 1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보면 안정애착이 35명(77.8%)이고, 불안정 애착이 10명(22.2%)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영아들의 경우, 어머니에게 안정되게 애착을 형성하는 비율이 불안정하게 애착을 형성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기의 대표적인 애착유형은 어머니와의 격리시

7) $\alpha=.88$

8) $\alpha=.91$

9) 청년기; $\alpha=.85$, 중년기; $\alpha=.78$, 노년기;
 $\alpha=.69$

감정이 '불안'이면서 행동이 '수용'인 경우인 유형 1(46.12%)과 격리시 감정이 '불안'이면서 행동이 '저항'인 유형 2(45.0%)로 나타났다. 유형 1은 안정되고 독립적인 애착유형으로 볼 수 있고, 유형 2는 안정되고 의존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애착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청년기 이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부모자녀 애착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5점 척도에서 평균 3.67~3.86),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5점 척도에서 평균 2.97~3.37). 청년기 이후의 딸과 어머니간의 상호애착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딸 모두 좋아한다, 신뢰한다, 무심하지 않다 등의 감정은 매우 높았지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의사소통의 근접성향은 비교적 낮은 것이 청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척도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딸들이 자신의 주장은 자유롭게 표현하나, 청년기의 딸들은 어머니에게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존적 성향은 높았고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향이 비교적 낮았다. 중년기 어머니는 어머니와 자녀의 일을 구분짓는 경계개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과 자율성의 정도를 세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애착은 비록 유의적은 아니더라도 청년기 딸-중년기 어머니 관계보다 중년기 딸-노년기 어머니 관계에서 약간 더 높았다. 자율성에서는 청년기 딸이 자신의 어머니보다 낮은 데 비해 중년기에서는 노모가 딸보다 낮았다.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민감성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민감성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r=.35$).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무관심하고, 방임하며,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등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낼수록 영아는 어머니에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기의 경우, 아동의 애착유형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과는 달리 어머니의 '신뢰' 양육행동에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는 상대가 되어주고, 도움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안정되고 독립적인 애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 딸과 중년기 어머니의 상호간 애착, 그리고 중년기 어머니와 노년기 할머니 간의 상호애착은 둘 다 긍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20, r=.21$).

딸의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과 어머니의 딸에 대한 자율성과의 관계에서 청년기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중년기 딸과 노모의 관계에서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r=.20$).

2. 연구문제 2

조모-모의 애착은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조모-모의 애착과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아기 및 아동기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중 독립성 조장과 수용의 두차원 모두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기 이후는 청년기 딸-중년기 어머니-노모의 3세대 관계에서 노모의 중년기 딸에 대한 애착은 중년기 어머니의 청년기 딸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29$). 또한 중년기 딸의 노모에 대한 애착이 청년기 딸의 중년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r=.21$). 이러한 결과는 노모와 중년기 딸의 상호관계가 어머니와 그 딸간의 상호관계로 전이됨을 시사한다.

모녀관계의 3세대간의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년기 어머니의 청년기 딸에 대한 애착을 통제하였을 때, 중년기 어머니의 노모에 대한 애착과 청년기 딸의 중년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3

세대간의 전이가 중년기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문제 3

영아기의 경우,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영아의 사회적 능력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들 변인들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 애착유형, '신퇴'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 교육수준이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신퇴' 양육행동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유형 1)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청년기 이후의 경우, 청년기 딸의 사회적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중년기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어머니와의 동거형태, 그리고 청년기 딸의 출생순위 등을 통제하여 청년기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감정과 자율성이 청년기 딸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NCOVA분석을 하였다.

표 2를 보면, 청년기 딸의 사회적 능력은 청년기 딸의 출생순위, 그리고 조모와의 동거형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감정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0.95, P<.001$). 또한, 청년기 딸의 사회적 능력은 그 어머니의 교육수준($F=6.03, P<.05$)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청년기 딸에 대한 지지가 높아 상대적으로 청년기 딸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중년기에서는 중년기 딸의 노모에 대한 애착감정과 자율성이 중년기 딸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중년기 딸의 교육수준, 가족형태가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변인이 중년기 딸의 사회적 능력의 27%를 설명하고 있다.

표 1.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²	β	F
사회적능력	어머니 교육수준	.26	.09	.27	22.76***
	애착유형†	.22	.14	.19	13.17***
	'신퇴' 양육행동	.26	.17	.18	8.22**

†애착유형은 유형1은 1로 유형2는 0으로 가변수처리하였다. ** $p<0.1$ *** $p<.001$

표 2. 청년기 딸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애착감정, 자율성의 영향에 대한 공분산분석

Source	DF	MS	F
독립변인			
애착감정	1	969.37	26.94**
자율성	1	43.15	1.20
어머니의 교육수준	1	145.65	4.05* -
출생순위	1	131.78	3.66
동거형태	4	9.05	0.25

* $P < .05$ ** $P < .01$

표 3. 청년기 딸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애착감정, 자율성의 영향에 대한 공분산분석

Source	DF	MS	F
독립변인			
애착감정	1	308.51	17.61***
자율성	1	270.33	12.61***
청년기 딸의 교육수준	1	189.46	8.77***
출생순위	1	37.56	1.74
동거형태	4	63.16	2.92**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첫째, 우리나라 부모 자녀간의 애착관계는 비교적 안정도가 높고, 전생애를 거쳐 발달되고 있으며 부모자녀관계는 상호작용적이다. 그러나 모-자녀간의 상호관계를 특징지우는 변인들은 발달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관계는 어머니의 민감성보다는 적절한 양육행동이, 아동기 경우는 애정보다는 신뢰감을 주는 양육행동이 유의한 관계를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가족에서는 영아 및 아동에 대해 어머니들이 대체로 민감하고 애정이 높은 양육행동을 보이므로 민감성보다는 적절한 양육행동이, 그리고 애정보다는 신뢰감을 주는 양육행동이 부모-자녀관계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이후의 애착관계에서는 모녀간의 애착은 상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자율성은 청년기 이후의 모녀관계에서만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청

년기의 주된 발달과업의 하나로 자율성 발달을 강조하는 서구가족과는 달리 한국 가족에서는 자녀가 청년기까지는 부모에게 매우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부모-자녀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기 때문에(유은희, 1991b) 청년기 딸과 노모의 관계에서는 자율성 발달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조모-모-자녀 3세대간의 애착관계는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영아기, 아동기에서는 조모-모의 애착과 모-자녀의 애착이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청년기 이후에서는 3세대간의 애착이 서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대조되는 관계는 측정방법에서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영아기와 아동기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식 보고법을 사용한 반면에, 청년기와 성인기에서는 현재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적 차원에서 볼 때 모녀관계는 3세대간에 전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모녀관계의 3세대간 전이는 청년기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년기 어머니의 청년기

딸에 대한 애착을 통제하였을 때 중년기 어머니의 노모에 대한 애착과 청년기 딸의 중년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된다. 이는 중년기 어머니의 노모에 대한 애착이 자신의 청년기 딸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쳐 다시 아래세대의 모녀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애착의 세대간 연속성을 가져온다는 애착이론을 지지한다.

세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모두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의 기능이 전생애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영아기는 애착과 사회적 능력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다.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영아의 사회적 능력간에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아마도 사회적 능력발달이 지닌 특성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의 측정은 비교적 또래와 활발히 상호작용하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3~4세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애착 외에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기 이후의 모든 발달단계에서 교육수준만이 일관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어머니의 행동 및 자녀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가정환경변인 중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본 연구는 모-자녀간의 애착이 전생애적으로 작용하고 애착이 사회적 능력발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세대간 전이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1) 고경애(1983).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박성연(1988). 모의 결혼관계와 모-기혼자간의 애착에 관한 연구. 농촌 54(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11-233.
- 4) 박성연·유은희(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 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2), 149-162.
- 5) 박용임(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유은희(1991a).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유은희(1991b). 성인자녀-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생활 변화의 적응-전생애적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9(4), 111-1.
- 9) 유은희(1993). 부모 자녀 관계와 수험생자녀의 학업성취, 현대사회와 가족문제-한국가족의 자녀교육열과 가족의 대처방안. 학술진흥지원 연구.
- 10)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Ainsworth, M.D., Blehar, M.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NJ : Lawrence-Erlbaum.
- 12) Bretherton, I., Biringen, Z. & Ridgeway, D.(1991). The parental side of attachment, In K. Pillermer & K. McCartney(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NJ : Lawrence-Erlbaum 1-24.
- 13) Cassidy, J.(1986).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environment : An aspect of infant competence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7, 31-337.
- 14) Cicirelli, V.(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15) Cohn, D.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16) Denham, SA., Remwick, S.M. & Holt, RW.(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17) Epstein, S.(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18) Klagsbrun, M., & Bowlby, J.(1976). Responses to

- separation from parents : A clinical test for young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rojective Psychology* 21, -21.
- 19) Lewis, M.(1987). Social develop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J.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 John Wiley.
- 20)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21) Parks, K.A. & Waters, E.(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0, 1076-1281.
- 22) Pillemer, K. & McCartney, K.(1991).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Hillsdale : Lawrence-Erlbaum.
- 23)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24) Smith, P.B., & Pederson, D.R.(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The coherence of individu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834-841.
- 25) Sroufe, L.A.(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